



## “ESG경영 · 스마트 팩토리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

이진순 (주)유림원색 대표이사

연포장은 가볍고 경제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잡아끄는 강력한 디자인은 연포장의 그라비아인쇄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 그라비아인쇄는 선명하고 섬세한 동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라비아인쇄용 동판을 제조하는 (주)유림원색을 40년째 이끌고 있는 이진순 대표이사를 만나 우리나라 제판 및 동판업계의 현황과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편집자 주 -

### 40년간 지켜온 제판 현장

“1983년 1월 방산시장에서 그라비아 인쇄판을 만들면서 제판 일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제판작업을 수작업으로 했는데, 독한 약을 손으로 직접 칠해가며 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제판 및 동판 제조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진순 (주)유림원색 대표이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 대표이사는 “2000년 초부터 제판 및 동판업계가 자동화되면서 직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반대다. 조각기, 도금기, 연마기 등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인력을 100% 대체할 수는 없었다. 각 공정별로 작업자가

필요한데, 갈수록 공정이 복잡해지고 작업량이 많아지고 납기기간이 짧아지면서 작동할 기계가 많아지고 필요인력이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인력 관리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지만 유림원색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이사는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 등 기본을 지키며 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25% 가량 근무하고 있는데,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직원이 아니라 식구(食口)라고 생각한다. 한술밥 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고 일하는 사이에 상호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덕분인지 장기근속자가 많은 편이다”라고 덧붙혔다.

### 낮은 시장 가격 · 단납기 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 제관 및 동관업체의 산 증인인 이진순 유림원색 대표이사는 제관업체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시장 가격을 꼽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력이 늘어나고 장치비용이 늘어났는데 시장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 제관업체 전체가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이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격은 일본에 비해 30% 가까이 저렴하고, 중국에 비해서도 10% 이상 저렴하다고 한다.

이 대표이사는 “수작업으로 할 때는 판을 만드는 숫자가 적어 매출액은 적었지만 수익은 맞출 수 있었다. 20년 전 조각기를 도입하면서 제관산업이 장

치산업으로 변모했다. 장치를 들이면 인원이라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 운영비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반면에 동관가격은 오르지 않아 수익이 현저히 내려갔다. 시장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돼 제관업체 전체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짧은 납기기간을 꼽았다. “과거에는 납기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였는데, 기계화되면서 3일로 줄었다. 급발주의 경우 이틀 만에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단납기를 맞추려면 설비를 많이 들고 인력도 늘려야만 한다. 설비 투자 및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영상 문제로 이어진다.”

앞서 말한 낮은 시장가격에 단납기로 인한 고정비 상승은 제관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진순 대표이사는 “일본은 제관가격이 우리나라보다 30%가량 높고 납품일이 5~7일이기에 주간 근무만으로도 주문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포장 업체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라며 “최근 국내 제관 업체에서 장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제관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오랜 시간 기술을 연마해야만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에 기존 업체로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급발주와 같은 무리한 단납기 요구는 품질 저하(불량)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진순 유림원색 대표이사는 “친환경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판기업을 비롯한 연포장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을 통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는 연포장 업계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림원색은 연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언제나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시스템화로 정확한 납기 실현

이진순 대표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판기업의 핵심은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판 업계에 조각기가 도입되면서 품질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해졌다. 요즘은 속도 싸움이 치열하다. 어떻게 납기일을 정확하게 맞출 것인가가 관건이다.”

유림원색은 납기일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시작했다. 4년 전부터 이지수 이사를 중심으로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작업량, 작업속도, 불량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며 작업계획이 더욱 정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수해 작업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 불량이 줄어들고 동판 재제작률이 줄어들면서 단납기가 가능해졌다.

이지수 유림원색 이사는 “동판 제작 시 내부 불량

발생되면 재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납기 지연이 발생되는데 전 직원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화하여 내부불량으로 인한 로스(loss)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숙련자가 아니라도 동일한 품질을 구현해내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 이슈에 대한 업계 공동 대응 필요

이진순 대표이사는 최근 환경 이슈가 커지면서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현장에 맞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 환경에 이로운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림원색도 ESG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이해하고, 더욱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이사는 “규제가 강화되는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대응 속도는 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훌륭한 정책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겠는가. 제조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연포장 업계 전체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수성잉크나 알코올타입 잉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인쇄기와 잉크를 바꾸면 인쇄품질이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건조 속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대표이사는 “우리는 거래처의 요구에 맞게 동판의 심도, 경도 등을 조정하며 납품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인쇄기, 인쇄잉크, 작업 환경 등이 워낙 다양해 정확한 스펙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쇄소, 인쇄기계사, 잉크제조사, 제판사 등 관련 기업 담당자들이 모여 연구·개발을 함께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스펙을 도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판기업을 비롯한 연포장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을 통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는 연포장 업계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림원색은 연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언제나 동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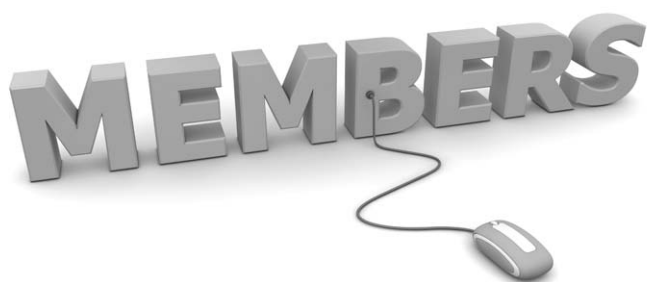
### 스마트팩토리 실현 노력

마지막으로 이진순 유림원색 대표이사는 2022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친환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성잉크용 동판을 개발 중이다.

또한 제조현장의 분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화, 시스템화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스마트팩토리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40년 간 제판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이지수 이사를 비롯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나리 기자 / olivelina@hanmail.net



##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